

150억 들인 진도 ‘전복양식섬’ 민·관 갈등

진도 어민들 불만 고조 “준공 지연에 3년째 수익 못올리고 시설물 파손·부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어민 과민 반응... 보수작업 순조 10월 이양 문제없다”

전복양식의 규모화·기업화를 위해 진도 해역에 조성되고 있는 전복양식섬을 둘러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진도 양식어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준공이 지체되면서 어민들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강한 바람과 조류에 의해 설치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22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전복 양식 규모화·기업화를 통해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해양수산부에 건의, 2013년 국비 75억원, 도비 75억원 등 1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복양식섬 조성사업’이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같은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2014년 5월

전복가두리 5244칸, 해조류양식장 3471줄의 시설공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준공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2015년말 완공예정이었다가 올해 5월말로 변경된데 이어 최근 강한 바람과 조류 등의 영향으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면서 다시 올 하반기로 준공시점이 연기됐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실시설계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양식시설물을 완벽하게 준공하고, 전복양식 시기에 맞춰 어업인들에게 시설을 이양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양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전복양식섬 사업 실시 후 1000만원씩 출자해 영어조합법인까지 구성한

진도어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가 2013년부터 진도수협으로부터 사업대상지인 진도 군내면 전두~나리 일원의 양식 면허권을 회수에 3년 이상 전복 양식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준공시점까지 계속 연기되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이양받게 될 시설물까지 부실 논란이 일면서 어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장봉수 영어조합법인 대표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시설물 상당부분이 파손돼 이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어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의견수렴은 외면했으며 여러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가)면허권을 회수할 때 인근 4곳의 어촌계가 영어조합법인과 전복양식섬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전복양식섬 운영주체는 영어조합법인”이라고 덧붙였다.

어민들은 23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파손된 양식장 시설물 철거와 담당 공무원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어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진도 일대에 조류가 거세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으나 보수 및 결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아직 민간 이양 주체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北 군사회담 등 잇단 남북대화 제안 국제 사회 대북제재 균열 노린 듯

북한이 연이율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회담 언급에 지체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1일에도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통해 5월 말과 6월 초 사이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하라고 제의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북 군사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일단 군사회담 개최를 최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인민무력부는 우리 군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사이 군사적 신뢰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지는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우리를 자극하는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여야 하며 진실로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잇단 대화공세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 야기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기 위한 속셈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인민무력부의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 통지문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발표한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남대 대강당 ‘민주마루’ 공연장으로 재탄생



41년만에 리모델링
27일 광주시향 공연

계명대 계명아트센터와 충남대 정심화홀 등 대학 공연장은 지역 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전남대가 첨단 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연장을 오픈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전남대학교 대강당이 41년만에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공연장 ‘민주마루’로 재탄생했다.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학교측은 공간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감안, 대강당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며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다. 오케스트라, 국악,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이 가능한 민주마루는 연면적 5055㎡, 916석 규모로 기존(1124석)보다 좌석을 축소한 대신 타원형 배치를 통해 관객의 관람 편의를 고려했다. 또 고정식 음향 반사판을 설치, 무대 소리를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전달하도록 했으며 독일산 스타인웨이 피아노도 갖췄다.



1975년 완공된 전남대 대강당이 41년만에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다목적 공연장 ‘민주마루’로 재탄생했다. <전남대 제공>

그밖에 콘크리트를 걷어낸 대강당 앞 주차장엔 잔디 공간을 조성, 학교측이 보유한 석조 유물을 전시하는 야외박물관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연장 이름 ‘민주마루’는 교내 공도를 통해 정했다. 5·18 광주민중항쟁 발원지이자 한국 민주화 상징임을 영원히 기억하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다. 또 ‘네이밍

(naming) 모금 운동’을 진행, 참가자 140여명의 이름을 좌석에 새길 예정이다.

1975년 완공된 전남대 대강당은 초창기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전남대합창반, 연극반 등이 상주하며 대학문화를 일궈낸 문화현장이었지만 낙후된 시설 탓에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개관 기념음악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열린다. 전남대 개교 64주년과 총동창회 창립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무대로 광주시립교향악단(지휘 최승한)을 특별초청했다. 프랑스의 ‘대학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사라사테의 ‘쥘리엔네르 바이엔’ 등이 연주되며 전남대 교수, 동문 전남대 합창단 등이 함께한다. 문의 062-530-11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북한 외교 사령탑’ 강석주 사망

북한의 강석주(사진)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2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강석주 동지는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주체 105(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면서 “동지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과 영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조객들은 5월 21일 16시부터 20시까지 맞이할 것”이라며 “5월 22일 8시에 고인의 영구를 발인한다”고 덧붙였다.

강석주 전 비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외교부에서 제1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대미외교를 총괄한 인물이다. 1994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에 배석했고, 같은 해 10월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북핵 특사와 북미 기본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협상의 주역이다. 그의 사망에 따라 북한 외교 진용은 ‘리수용-리용호 투동체제’로 새로 재편됐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서구,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각각 58.7% 56.9% 실적

광주시 북구와 서구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정부의 독려에도 지자체들이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예산 집행을 미루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이때까지 이 정도는 지출해야 한다”며 제시한 예산 집행률 기준은 지난달 말 기준 34.5%로, 이날 말 45.8%다. 이 기준대로 예산집행을 목표를 달성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43곳 중

17곳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선 북구와 서구가 각각 58.7%와 56.9%를 기록, 이미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다.

나머지 22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평균치인 45.8%에 훨씬 못 미쳤다. 이들 지자체의 집행률은 행자부의 지침보다 7.3%p 이상 낮다.

국원 양구군의 집행률은 18.4%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요구에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르쇠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가 파악한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규모는 모두 320조1144억원이다. /이종형기자 golee@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 금호기업 주식회사(“회사”)는 2016년 5월 2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발행주식 전부(10,004,771주)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터미널 주식회사(“금호터미널”)가 회사를 흡수합병(“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본건 합병에 따라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는 금호터미널에 승계되며 회사는 해산됩니다.
- 한편, 본건 합병 후 금호터미널(본건 합병과 동시에 ‘금호홀딩스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될 예정입니다)의 자본금은 16,557,500,000원, 발행주식 총수는 3,311,500주가 됩니다.
-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가. 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사의 각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 나. 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보유하고 계신 회사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및 장소
 (1) 이의제출 기간 : 2016년 5월 23일 ~ 2016년 6월 23일(1개월)
 (2) 이의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3층 지원팀

나. 구주권제출 기간 및 장소
 (1) 구주권제출 기간 : 2016년 5월 23일 ~ 2016년 6월 23일(1개월)
 (2) 구주권제출 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3층 지원팀

2016년 5월 23일

금호기업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대표이사 서재환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서양새마을금고 양림지점 및 북저관 신축공사 (건축 및 소방)

나.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73 (양림동)의 1필지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라. 공사개요 : 지상5층, 연면적 560.92㎡, 철근콘크리트구조 마. 공사내용 : 건축공사 및 기계설비, 조경, 부대공사, 부설주차장 조성공사, 소방공사

바. 수요(주관)기관 : 서양새마을금고
 사. 추정가격 : ₩1,132,562,000원(부가가치세포함)

본 공고문의 전문 및 붙임문서 등은 서양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sybank.co.kr)의 공사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 등)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와 상이 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속 시 주소창에 직접 http://www.sybank.co.kr을 입력하여 우리금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양새마을금고(☎062-671-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서양새마을금고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회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된다면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적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